

17·8세기 고전소설에 나타난 '안남국(安南國)'의 형상과 그 의미

-〈창선감의록〉·〈소현성록〉·〈완월회맹연〉·〈몽옥쌍봉연록〉을 중심으로 -

서정현*

|| 차례 ||

- I. 머리말
- II. 화이론과 관련된 조선조 안남국 인식의 양상
- III. 17·8세기 고전소설에 나타난 안남국의 형상
- IV. 화이론을 통해 본 안남국 형상의 의미
- V. 맺음말

【 】

본고에서는 <소현성록>, <완월회맹연>, <창선감의록>, <몽옥쌍봉연록>의 네 17·8세기 고전소설에 나타난 안남국의 형상에 주목하여, 화이론을 중심으로 한 조선 후기의 대외관과 그 소설문학적 형상화의 방향성을 읽어내고자 하였다. 조선 후기의 안남국 관련 문헌기록들에서는 '이(夷)'와 '화(華)'라는 서로 상반되는 인식이 병존(並存)하되, 전반적으로는 후자에 기울어지고 있었다. 네 소설 작품은 이러한 현실 속 인식을 반영하였다. <소현성록>과 <완월회맹연>에서는 작중 발화를 통해 안남국의 '이'로서의 형상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을 모방한 문화를 지닌 '화'로서 은연중에 형상화하여 서로 모순된 양면을 드러내었다. <창선감의록>과 <몽옥쌍봉연록>에서는 모두 유교화한 제후국인 '화'로서 안남국을 형상화하였다. 특히 <몽옥>의 경우 안남국 출신인 주인공을 통해 변방의 제후국 또한 중국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위치에 이를 수 있다는 자의식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제후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폭압적 행보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였다. 네 고전소설 작품에 등장하는 안남국의 형상은, 조선조 사대부 문인들의 현실

* 안동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사

속 안남국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동시에, 화이론을 중심으로 한 조선 후기의 대외관이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어떻게 형상화되는지를, 그리고 가치판단적 측면에서 그 진보와 퇴보의 편폭을 가늠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주제어 : 안남국, 화이론, 고전소설, 조선 후기

I. 머리말

본고는 우리의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이민족 국가인 ‘안남국’의 형상에 주목한다. ‘안남국’ 혹은 ‘운남국’으로 표기되는¹⁾ 이 국가는 현재의 베트남을 가리킨다.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베트남은 본격적인 국가 형성기인 기원전 2세기경의 남월(南越) 왕국 시절부터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동안 분쟁과 교류를 반복하면서 역사적·문화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성을 지녀 왔다.²⁾ 고전소설 속 안남국이 중국에 저항하는 이민족 국가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지배를 받아들이는 신하의 나라로서 묘사되는 점은 이러한 역사성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안남국은 주로 주인공이 영웅적 활약을 펼치는 전쟁담과 관련하여 나타나면서도, 존화양이론(尊華攘夷論), 이른바 화이론(華夷論) 혹은 화이관(華夷觀)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작품

1) ‘안남’이란 명칭은 중국 당나라 고종 때 현재의 하노이에 설치된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주로 중국인들이 베트남을 호칭할 때 사용되었다. 고전소설의 ‘안남국’ 혹은 ‘운남국’이란 호칭은 ‘안남국’이 정확하겠으나, 베트남과 인접해 있는 운남성(雲南省) 일대의 지명과 혼동되어 같이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안남국’이란 호칭을 사용하되, 두 명칭 모두로 불리는 국가를 공통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2) 유인선,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양국관계의 어제와 오늘』, 창비, 2012, pp.14-15.

마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 '화(華)', 즉 중국의 신하이자 유교화한 문명국으로서의 면면과, '이(夷)', 즉 징치·교화해야 할 오랑캐로서의 면면을 개별 작품에 따라 단면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국경 밖에 있으면서도 소중화(小中華)를 자처하였던 당대 조선의 대외관과, 그것에 관련된 소설 향유층의 의식세계를 읽어낼 단서를 제공한다.³⁾

고전소설 속 안남국의 형상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선행 연구들 또한 위와 같은 화이론의 문제에 주목해 왔는데, 주요 연구로 강제철,⁴⁾ 조혜진⁵⁾, 서정현의 논의⁶⁾를 들 수 있다. 강제철은 <몽옥쌍봉연록>, <옥소기연>, <장백전>, <쌍주기연> 등의 작품을 논의하면서, 고전소설 전반에서는 화(華夷)의 구분을 명시하기도 하되 전반적으로는 베트남에 대한 형제의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조혜진은 <몽옥>에 나타난 안남국의 공간적 양상에 주목하여, 그것이 안남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삼는 유연한 화이관을 나타내는 한편, 그리고 인재 등용과 관련한 변방에의 차별적 인식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였다. 서정현은 <창선>의 군담에서 등장하는 안남국의 형상에 주목하여, 그들이 오랑캐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형상화되고 있으며, 이는 조선 후기 사대부들의 대외관과 위기 극복 의식의 반영이라고 보았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화이론과 관련한 소설 속 안남국 형상의 제반 특질들이 세밀하게 논의되었다. 특히 작중 안

3) 박희병은 국문소설의 대부분이 중국을 배경으로 삼으면서 화이론적 시각에서 중국과 비(非)중국을 엄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는 17세기 이래 조선 사회를 지배했던 소중화(小中華) 사상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유교와 한국 문학의 장르』, 돌베개, 2008, pp.106-107)

4) 강제철, 『한국고전소설에 나타난 대월의식』, 『동양학』 30,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0.

5) 조혜진, 『<몽옥쌍봉연록>의 공간 인식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4.

6) 서정현, 『<창선감의록> 군담(軍談)의 특징과 작자의식』, 『고소설연구』 41, 한국고소설학회, 2016.

남국이 단순한 ‘오랑캐’가 아니라, 당대 조선의 현실과 대외관을 투영하는 복합적 의미를 지녔음을 확인한 의의가 있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는 소설 속 안남국의 형상과 그에 관련된 화이론의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그것을 조선의 화이론이 집중적으로 배태된 배경과 연관짓는 시각은 비교적 부족한 편이었다. 17·8세기, 즉 임(壬)·병(丙) 양란(兩亂)의 발생과 명(明)·청(淸)의 교체라는 국제정서의 격변기에, 시대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이념적 토대로서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을 비롯한 조선의 사대부들은 전통적인 화이론을 바탕으로 한 소중화주의(小中華主義)를 발전시켰다. 선행 연구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이 주장의 핵심은, 화이론에서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세 가지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문화·종족 가운데 ‘문화’의 측면에 주목한 데 있다.⁷⁾ 조선의 ‘지역’과 ‘종족’은 중화가 아니되, 명의 멸망 이후에는 청이 아닌 조선이 주나라로부터 이어지는 중화문명, 즉 ‘문화’의 정통한 계승자라는 것이 소중화주의의 근간이었다. 스스로 중화를 자처함으로써 조선의 문인들은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본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화이론과 소중화주의에 근거한 조선조 문인들의 인식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속에서 조선과 유사한 입장에 처해 있었던 안남국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주요하게 적용되었을 것임을 유추 가능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화이론을 대두시킨 17·8세기 상층 사대부 계층의 저작 및 향유물이자, 안남국의 형상을 구체화한 일련의 고전소설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바로 17세기의 <창선감의록>과 <소현성록>, 그리고 18세기의 <완월회맹연>과 <몽옥쌍봉연록>이다.⁸⁾

7) 우경섭, 『송시열의 화이론과 조선중화주의의 성립』, 『진단학보』 101, 2006, pp.260-261.

8) 본고에서는 다음의 자료들을 주요 저본으로 삼는다.

네 편의 작품은 소설사 내에서 '안남국'이란 관습적 화소를 구체화한 시 발점에 해당하며, 동시에 화이론을 주창하였던 17·8세기 상층 사대부들의 가문을 중심으로 창작·향유된 장편소설이기도 하다.⁹⁾ 즉 당대 지식인들의 화이론을 통해 안남국을 비롯한 이민족 국가들을 인식하는 의식층위가, 소설문학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굴절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니는 의미·의의가 무엇인지를, 네 작품의 안남국 형상에 대한 주목을 통해 확인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17·8세기의 고전소설 네 작품에 나타난 이민족 국가인 '안남국(安南國)'에 주목하여, 그 구체적 형상을 당대 소설 향유층의 화이론을 중심으로 한 의식층위와 관련지어 살피고, 나아가 소설사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단순한 소재 차원에서 안남국을 다루는 것을 넘어서서, 조선 후기의 화이론 및 대외관을 중심으로 한 사상적 흐름과 그 문학적 형상화의 방향성을 읽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현성록>, 이화여대본.

<완월회맹연>, 김진세 독해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창선감의록>, 이지영 교감·교주본, 문학동네, 2010.

<몽옥쌍봉연록>, 최길용 교주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및 러시아동방학연구소본 합본), 학고방, 2017.

9) 구체적인 창작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의들을 참조할 수 있다.

김병국, 『“구운몽”의 창작 시기』, 『한국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대 출판부, 1995, pp.296-300.

서정현, 위 논문, p.8, 각주 9)·10).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3.

조혜진, 앞의 논문, pp.5-6.

II. 화이론과 관련된 조선조 안남국 인식의 양상

최치원의 『계원필경(桂苑筆耕)』 이래로 한반도의 역대 문인들은 안남국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다양한 기록들을 남겨 왔다. 양국 간의 정식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로 중국 사행(使行)을 통한 견문(見聞)과 사신 간의 시문(詩文) 교류가 기록들의 주를 이루었다. 해당 기록들에 대해 고전소설 분야에서는 강재철,¹⁰⁾ 박희병¹¹⁾ 등의 선학들이 전반적인 검토를 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문인들이 남긴 대다수의 기록들이 안남국에 대한 우호의식을 보여주는 점,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근간에는 중국에 사대(事大)하는 변방국으로서의 지위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화이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므로, 선학들의 성과를 수용하되 문헌 기록들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전통적인 화이론의 재인식과 소중화주의의 대두는 전란 체험을 반영한 17·8세기 전후의 일이다. 하지만 소중화주의의 핵심인 문화의 측면에 주목한 화이분별의 논리와, 그를 통한 안남국 인식은 적어도 조선 전기에서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다. 15세기에 서거정(徐居正)이 안남의 사신 양곡(梁鵠)과 시를 주고받으면서 ‘사해가 모두 형제(弟兄均四海)’¹²⁾라는 우호의식을 드러낸 것을 시작으로, 사행을 통해 양국 간에 이루어진 시작(詩作)의 기록들이 여럿 남아 있다. 특히 1598년 사행을 다녀온 이수광(李睟光)은 『안남국사신창화집(安南國使臣唱和集)』을 통

10) 강재철, 앞의 논문.

11) 박희병, 『조선 후기 지식인과 베트남』, 『한국문화』 47,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12) <(차안남사양곡시운(次安南使梁鵠詩韻)>, 『사가시집(四佳詩集)』 제7권, 『시류(詩類)』.

해 아홉 편이 교류시와 더불어 안남 사신 풍극관(馮克寬)과의 문답을 구체적으로 남겼다. 이 책의 발문을 지은 차천로(車天輅)는 “지봉 선생의 시문이 이국 사람의 눈을 놀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남 사람의 작품도 죽히나의 의사를 열어 주었다.”, “서로가 읊고 화답한 것이 마치 편종(編鍾)을 치면 옥경(玉磬)이 화응하듯이 하였으니, 여기에서 두 나라 사신이 교제할 때 언어와 문장이 서로 뒤지지 않아서 시를 지어 뜻을 보이는 의의에 합치하였다”¹³⁾고 평가하고 있다. 즉 17·8세기 이전에 조선의 문인들은 안남의 문인들과 그들이 보여주는 문학적 능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고하를 다투는 경쟁자로 인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기록들은 안남국을 ‘화’로 인식한 것이되, 한편에서는 ‘이’ 혹은 그에 가깝게 평가하는 인식도 엿보인다. 16세기에 보이는 ‘중국 사람들에게 조선은 안남과는 달리 어리석은 오랑개(鄙夷)가 아닌 소중화로 여겨진다’¹⁴⁾, ‘유구와 안남은 예의풍속을 모르며, 조선에 미칠 바가 아니다’¹⁵⁾ 등의 언급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전하는 조선조의 안남국 관련 기록이나 사신들 간의 교류 등을 고려하면, 강재철과 박희병의 지적처럼 당대 문인들

13) “不惟先生詩文 足以刮異國之人之目 安南人之作 亦足以起予 更唱迭和 金春而玉應 於此足見兩國使臣之交際 辭令文章 不相上下 而有以合夫賦詩而觀志也”, 차천로 『오산집(五山集卷之五)』 권지오, 『안남국사신창화시집발(安南國使臣唱和詩集跋)』.

14) “우리나라가 멀리 동쪽에 있어 중국에서 보기에 안남이나 교趾(交趾)와 다름이 없는 데도, 중국 사람들이 비이(鄙夷)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화(小中華)라고 말하는 것은 …(我國家邇處日域 自中國視之 與安南 交趾無異 而中國之人 不鄙夷之 至稱小中華).” 『중종실록』 7년, 임신(1512) 12월 26일(병인). 원문과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 사이트로부터 발췌함.

15) “유구와 안남은 예의를 모르오. 유구의 풍속에는 바지가 없어 개돼지 같으므로 내조(來朝)하는 날 두 나라 사람들은 모두 중국옷을 빌려 입은 것이오(琉球安南不知義禮 琉球則其俗無袴子 有同狗彘 來朝之日 二國之人 皆假着中國衣服).” 『대동야승(大東野乘)』, 『패관잡기(裨官雜記)』 제2권. 원문과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 사이트로부터 발췌함.

의 전반적인 인식은 그들을 문명국으로 인정하는 긍정적·우호적인 방향에 기울어져 있었다고 할 만하다.

이상과 같은 임·병 양란 이전까지의 안남국 관련 인식은 후대에도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19세기까지 계속된 양국 사신들 사이의 교류 가운데 18세기의 서호수(徐浩修)는 1790년 부사(副使)로 사행에 참여하면서, 전대의 이수광보다 한층 자세한 문답의 기록을 남겼다. 그가 저술한 『연행기(燕行記)』에는 안남국의 이부상서(吏部尙書)인 반휘익(潘輝益)과 주고받은 문답 및 교유시가 남겨져 있다. 이 글들에서는 서호수가 전대에 이수광과 풍극관이 시를 주고받은 일에 대해 세세한 시구를 들어가며 극찬하거나,¹⁶⁾ 화답시를 통해 상대의 문재(文才)를 인정하는¹⁷⁾ 구절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보다 주목되는 것은 18세기 문인 이덕무의 언급이다. 이덕무는 조선과 안남, 유구(琉球)의 문물에 대해 서로 비교하면서, 안남 또한 역대의 문물(文物)이 왕성하여 볼 만하다고 평하면서도, 문명 수준의 서열로 따진다면 조선의 다음이라고 하였다.¹⁸⁾ 이 글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국을 제외한

16) “산이 이상하게 생겨 상골(象骨)이 풍요하고, 땅은 영기를 발산 용향을 생산하네.’라고 한 것은 지봉의 득의작(得意作)이고, ‘태극의 홍몽한 기운이 개벽되어, 위아래의 땅을 구분하였네.’라고 한 것은 또한 의재의 아름다운 시구였습니다(山出異形饒象骨地蒸靈氣產龍香 爲芝峯之得意語 而極判洪濛氣 區分上下壤 亦毅齋之佳句也).” 『연행기』 제2권, 「기열하지원명원(起熱河至圓明園)」, 경술년(1790) 7월 16일. 원문과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 사이트로부터 발췌함.

17) “새 시편 읽고 나니 풍미가 푸짐하여 / 문득 마음속이 꿀맛같이 느껴지네(新詩讀罷饒風味 頓覺中邊似蜜甘).” 『연행기』 제2권, 「기열하지원명원」, 경술년(1790) 7월 19일. 원문과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 사이트로부터 발췌함.

18) “안남(安南)은 옛 교지(交趾)의 지역으로 연경(燕京)과의 거리가 1만여 리가 되나 역대의 문물이 왕성하여 볼 만하오. <중략> 우리 조선은 기성(箕聖)이 피난 온 곳으로 요동(遼東)과의 거리가 1천여 리밖에 되지 않고, 전장(典章)과 예악(禮樂)은 사이(四夷)의 으뜸이라, 저 교지·유구와 비교해 볼 때 그 문명이 어떠하겠소? 그리하여 전사(前史) 외이열전(外夷列傳)을 두루 읽어 보니 조선이 제일이요, 다음은 안남(安南)이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을, '문명'의 수준에 따라 조선-안남-유구의 순으로 서열화하는 점에 있다. 즉 단순히 안남의 문명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혹은 조선의 안남에 대한 우월의식을 표현한 데 그치지 않고, 당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속에서 안남을 비롯한 타국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조선의 문명국으로서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있는 것이다.

단 위와 같은 시선 외에도, 비교적 드물긴 하되 안남국을 '이'에 가깝게 인식하는 관점 또한 여전히 존재하였다. 18세기에 이압(李埰)이 남긴 『연행기사(燕行記事)』가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압의 기록은 당대 안남의 풍속에 대한 현실적이면서도 세심한 관점이 돋보이긴 하되, 화이론의 관점에서는 '유교화'되지 않은 존재로 안남국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풍속은 음란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고 목욕과 대소변 보는데 남녀의 분별이 없으며 서로 회피하지 않는다.”, “글을 읽어 문자를 알기만 하면 모두 괴이한 것을 숭상하고 무당과 귀신을 높이며, 이씨(二氏)의 교(教)를 받들지 않는다.”¹⁹⁾라고 언급한 점이 그것이다.

한편으로 지식인들의 직접적인 서술에 드러나는 바는 아니되, 당대의 안남국 인식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되는 한 경로로서 중국의 위(魏)·촉(蜀)·오(吳) 시대를 배경으로 한 정사(正史) 『삼국지(三國志)』

요, 그 다음은 유구의 차례로 되어 있으니 이는 세력이 강한 것을 이름이 아니라 문명으로 따진 것이오(安南故交趾之域也 距燕京萬有餘里 歷世文物 鬱然可觀 <중략> 惟我朝鮮 箕聖之所避地 而距遼東千有餘里 典章禮樂 爲四夷首 較彼交趾琉球 其爲文明 顧何如哉 故歷讀前史外夷列傳 朝鮮爲第一 其次安南 又其次琉球 匪謂其強國 列序其文明也). 『아정유고(雅亭遺稿)』 간본 제6권, 『여이낙서서(與李洛瑞書)』. 원문과 번역은 『국역 청장관전서』 4권(민족문화추진회, 1981), 七三쪽(원문)과 p.196(번역) 참조.

19) “其俗則淫蕩無恥 沐浴及便溺 男女無別 不相迴避”, “而但能讀書知文字 皆尚怪異 亦崇巫鬼 不奉二氏之教.” 이압, 『연행기사(燕行記事)』, 『문견잡기(聞見雜記)』, 『잡기(雜記)』. 원문 및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 사이트로부터 발췌함.

와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 책들에서는 촉의 제갈량(諸葛亮)과 일곱 번 싸우고 사로잡힌 끝에 열복(悅服)하였다는 칠종칠금(七縱七擒)의 고사로 널리 알려진, 남만왕(南蠻王) 맹획(孟獲)의 이야기가 등장한다.²⁰⁾ 칠종칠금 고사는 최치원의 『계원필경』에 이 표현이 이미 등장하는 점을 통해,²¹⁾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오래 전부터 전파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안남국을 포함한 국경 밖 이민족들에 대해 정벌과 교화의 양면책을 사용하며 공존해 왔던 중국의 역사 및 그와 관련된 인식세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점에서 중요하다.

선행 연구에서는 화이론 및 소중화주의와 연관된 존주론(尊周論)의 대두와 함께, <삼국지연의>의 촉한정통론과 그 표상(表象)인 제갈량에 대한 주목이 17·8세기를 전후하여 나타났음을 밝힌 바 있다.²²⁾ <삼국지연의>에서 맹획이 이 제갈량의 남정(南征)과 관련하여 상당한 비중으로 서술되는 인물임을 고려하면, 제갈량에 대한 주목은 자연스럽게 이 맹획의 이야기에 대한 주목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안남국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본고의 연구 대상 중 하나인 <소현>의 안남 관련 서사가 <삼국지연의>에 나타나는 맹획 및 남만 관련 서사와 유사성을 보이는 점²³⁾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20) 맹획의 사례는 정확히는 『삼국지』가 아닌 『한진춘추(漢晉春秋)』에 나오며, 송나라 시대의 인물인 배송지(裴松之)가 『제갈량전(諸葛亮傳)』 항목에 주를 달아 놓았다.

21) “이미 칠종(七縱)의 계책이라고 할 수 없으니, 누가 삼구(三驅)의 범도라고 말하겠습니까(既垂七縱之謀 誰謂三驅之禮).” 최치원, 『계원필경집』 제17권, 『절서호군초장군서(浙西護軍焦將軍書)』. 원문 및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 사이트로부터 발췌함.

22) 백진우, 『전란의 기억과 문학적 극복 - 정묘·병자호란 이후 17세기 후반에 나타난 문학적 현상에 주목하여』, 『동양고전연구』 68, 동양고전학회, 2017, pp.89-94.

23) <연의>에서 나타나는 칠종칠금을 통한 맹획의 굴복과 그 부인인 축융부인(祝融夫人)의 형상은, <소현>에서 보이는 운남왕을 인의(仁義)로 굴복시키는 점과 운남왕의 부인이며 뛰어난 여걸(女傑)인 팽환의 형상과 유사하다.

이상으로 화이론을 통해 조선조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안남(베트남)에 대한 문헌기록들을 살핀 결과, 조선 전기에서부터 문화의 기준에 따른 '오랑캐' 혹은 '문명국'으로의 인식이 병존(並存)하되 대체로 후자의 경향이 짙었음을, 그리고 17·8세기에 들어서서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인식과 대명의리론 등을 반영한 변화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전소설에서는 이와 같은 안남국에 대한 인식이 어떤 방식으로 변용되어 나타나고 있을까? 이를 다음 3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Ⅲ. 17·8세기 고전소설에 나타난 안남국의 형상

1. 이(夷)와 화(華)의 모순된 양면 -〈소현성록〉·〈완월회맹연〉

〈소현〉과 〈완월〉의 안남국 관련 서사는 작중 주인공들이 영웅적 활약을 보이는 군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두 작품 모두 안남국이 중국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적대자의 입장으로 등장하며, 부자(父子)관계에 있는 주인공들에 의해 정벌된 후 다시 중국에 복속되는 공통점을 보인다. 송나라를 배경으로 삼은 〈소현〉에서는 소경과 소운성 부자가, 명나라를 배경으로 삼은 〈완월〉에서는 정잠과 정인성 부자가 중국 남방에서 일어난 이들의 반란을 진압하며, 나아가 도학(道學)을 강론하여 국왕을 비롯한 안남인들을 교화시키고 진심으로 중국에 복종하게 만든다. 〈소현〉에서는 '안남국'이 아닌 '운남국'으로 표기되는 점,²⁴⁾ 그리고 〈완월〉이 〈소현〉보다

24) 이는 앞의 각주 1)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리가 서로 가깝고 지명이 비슷한 데 따른 착오, 혹은 실제의 안남국을 모티브로 한 가공의 나라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훨씬 긴 분량을 토대로 복합적인 사건 전개와 다양한 인물들의 등장 및 구체적인 묘사를 보이는 점 등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에 등장하는 안남국의 기본적인 양상은 서로 매우 흡사하다.

그런데 <소현>과 <완월>에서 안남국은 중국 측의 인물들에 의해 ‘적자(賊子)’, ‘오랑캐’, ‘도적’, ‘무도(無道)’, ‘불측(不測)’과 같은 멸시가 전제된 표현들로 지칭되곤 한다. 중국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킨 안남인들조차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태도를 당연시한다. 작중에서 ‘반란’으로 호칭되는 중국에 대한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안남국의 왕들은, 그러나 중국 군대와 안남국 군대가 서로 마주쳐 개전(開戰)하는 상황에서 ‘저절로 몸을 굽히거나’ ‘놀라고 위축되는’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를 ‘소국’으로 낮추고 상대를 ‘대국’으로 높여 호칭하고 있다.²⁵⁾²⁶⁾ 더불어 서사의 마지막은 두 작품 모두 패배한 안남인들이 주인공들에게 예법과 충효에 관한 가르침을 받고 깊이 감복하여, 사당을 세우고 대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그려진다.²⁷⁾

작중 안남국이 ‘이’로 취급되고 있음을 보다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은, 중

25) “크게 놀나 묻져 흡신히는 줄 씨뎨디 못흐야 이에 몸을 구피 읍흐고 왈 쇼국이 일즉 대국을 저벼리디 아낫거늘 원슈 무슴 연고로 수만 니의 오시니잇가.” <소현성록> 이화여대본, 11권 p.31.

26) “남왕이 일침 광망의 황연 경축흐를 이기지 못흐던 <중략> 남국이 누년 기황흐를 인하여 공헌을 오리 폐하여시므로 스신을 보느지 못흐여거니와 일즉 병혁을 니라혀 디국을 침범흐른 업더니 이제 원슈 만니의 디병을 닛그러 니라른 쇼국의 허물이라 니르러니와 원간 기병 토죄흐른 과연 뜻흐지 아닌 브라.” <완월희맹연> 67권, 김진세 독해본 97쪽.

27) “승상이 네법과 통효를 무르치고 서로 니별하니 번인이 다 눈물을 흘니고 승상의 귀덕을 닛디 아나 비를 세우고 싱스당을 지어 스시의 제하더라.” <소현성록> 이화여대본, 11권 p.52.

“남왕 부즈와 빅성 부로 마춤니 경모흐는 정을 니기지 못흐여 성남 즈운곡의 일좌 치루를 일우고 원슈와 체찰의 얼굴을 도화흐여 이에 봉안흐고 스시의 제함을 빅천년의 쫓지 아닌 비 될 썩 아니라 ….” <완월희맹연> 67권, 김진세 독해본 pp.204-205.

국 측 주인공들과 안남국 측 여성인물들 사이에 나타나는 결연 시도와 실패의 서사이다. <소현>에서는 국왕의 정실인 팽환이 소운성을 유혹하는 서사가, <완월>에서는 국왕의 장녀인 해릉공주가 정인성을 유혹하는 서사가 나타난다.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현>에 등장하는 운남왕후 팽환은 뛰어난 용모와 더불어 만 명을 상대할 만한 용맹을 가진 여걸²⁸⁾로 묘사된다. 팽환은 국왕과 의논하여 항복하는 자리에서 중국 장수들과 무예를 겨루는 채 하면서 틈을 보아 소경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소운성이 겨루기에서 자신을 압도하자 그 위풍을 흠모하여 한밤중에 침소로 찾아가 동침을 요구하기도 한다. 팽환은 중세적인 배경과 어울리지 않게 남성의 영역에서 활약하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이자, 왕후라는 신분에 따라 요구되는 윤리도덕에 구애받지 않는 파격적인 성격의 인물이다.

하지만 그녀는 작중 주인공들에 의해 음녀(淫女)라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남성 장수들과 어울리려 하자 소경이 중국에서는 남녀가 같은 자리에 있는 법이 없다고 하여 쫓아내는 장면²⁹⁾ 소운성이 팽환을 향해 자신은 중국의 대신(大臣)이며 그녀는 오랑캐의 여성이므로 서로 대면하는 것조차 더럽게 여긴다면서 꾸짖는 장면³⁰⁾ 등이 그것이다. 소운성의 질타에 노기와 수치심을 느낀 팽환은 소운성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워

28) “왕의 정궁 달복왕후 팽환은 남하인이라 용모 절세하고 녀력이 과인하야 능히 구덩을 들고 용뎡이 강장하야 만인덕이 있더니…” <소현성록> 이화여대본, 11권 p.44.

29) “소공이 팽환의 당돌하물 미안하야 고평더 아국은 본디 이런 법되 업느니 녀장을 혼 죄의 드리디 못하리라 팽환이 붓그려 드러가고…” <소현성록> 이화여대본, 11권 p.49.

30) “운성이 정식고 대를 왈 너는 희외에 번네오 나는 등국 대신이라 서로 더흠도 더러이 너기느니 엇디 만고 강상을 폐하리오 하물며 너겨집의 형실이 이러듯하니 폐히 참하야 이 죄를 불힐 거시로디 보야호로 낭국이 화기를 일홀가 두리느니 썰리 물러가라 괴식이 엄정하니 환이 크게 붓그려 문득 도라가며…” <소현성록> 이화여대본, 11권 p.50.

그를 음해하지만, 이는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분노한 소운성에게 죽음을 당한다.

<완월>에 등장하는 안남왕의 장녀 해릉공주는 ‘맹렬한 성정과 과강(過強)한 품도(品道)’³¹⁾를 지닌 여성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안남왕은 중국 출신의 세객(說客)인 단이수의 계책을 받아들여, 친딸인 해릉공주를 속이고 휘절시키면서까지 적장인 정인성을 음해하려는 모략을 꾸민다. 평소 정인성을 흠모하면서도 그 뜻을 드러내지 못하던 해릉공주는 개용단(改容丹)을 써서 정인성으로 변장한 단이수에게 속아 그와 동침한 뒤, 정인성을 좇아 남장하여 중국 군대의 진영에 잠입한다. 이 소란으로 인해 정인성은 적국의 여성과 사통했다는 누명을 쓰고 처형당할 위기를 겪게 된다.

<소현>의 팽환과 달리 <완월>의 해릉공주는 비록 부족함이 있으나 숙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개인적인 욕망을 표출하되 국가를 위한 충성과 당대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절조를 우선시하는 인물이다. 그녀가 정인성의 뒤를 좇는 것 또한 흠모의 정만이 아닌, 부군(夫君)이 된 (것으로 착각한) 정인성을 설득하여 위기에 빠진 안남국을 구하기 위함이다. 후일 진실이 밝혀지고 자신이 계략에 속아 휘절했음을 알게 되자, 해릉공주는 여도에 어긋난 것을 이유로 자결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완월>의 작중 서술자는 해릉공주의 고결한 천성과 억울한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시선을 보내면서도,³²⁾ 그녀가 남녀간의 음란한 정에 빠진 점을 지적하며 부정적으로 평

31) “공주 성정이 밍널흐며 품되 과강흐여 담디흐고 견고흐니 부월과 정확이라도 두려 아니므로…” <완월회맹연> 66권, 김진세 독해본 p.151.

32) “본성인즉 청고흐고 괴벽흐여 흑발이 화벽기의 니르러도 음양 호합의 뉴동홀 성정이 아니라니…” / “뇨뇨흔 낭음이 계오 굿치고 염염흔 옥용이 잠간 속이는 바의 묘묘흔 섬신이 돛 아러 구러져 완연이 혼낫 시신이 되여시니 <중략> 이 과연 그 명일 다흐여 질병이 스흐미 아니오 그 아비된 지 흉교 음계로써 춤화를 더어 일시지간의 왜옥낙화 흐여 아즈의 뇨뇨하던 거시 당긋의 철철흐니 왕비와 세조 등의 원족지통이 상니의

가한다.³³⁾

<소현>과 <완월>에서 안남국 출신의 여성인물들이 중국 출신의 주인공들과의 결연에 실패하는 것은, 화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경계심의 반영이다. 결연은 서로 이질적인 종족이나 집단 사이의 화합을 유도하기 마련이지만, 두 작품에서는 이에 대해 노골적인 거부감과 함께 결연 대상이 된 여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듦으로써, 안남인이 중국의 경계로 편입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더불어 결연 실패의 과정에서는 남편 혹은 부친으로서 일정하게 관여하는 국왕들의 부도덕함이 짙게 드러나기도 한다. <소현>의 운남왕은 거짓 행복의 계락을 꾸미는 팽환의 행위에 동조하여 소경이 배운 아량과 신의를 배반하는 부도덕함을, <완월>의 안남왕은 국익을 명목으로 친딸 해릉공주의 훼손을 용인함으로써 부녀지간의 인륜에 크게 어긋나는 부도덕함을 보여준다.

결국 <소현>과 <완월>에서는 안남국을 중국에 의해 교화되어야 할 오랑캐, 즉 '이'로 치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작중에서 화이분별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은, 도덕관념을 중심으로 한 유교적 문화를 갖추었는가의 여부이다. 이는 안남인들이 주인공들의 도학 강론을 통해 교화되는 점이나, 안남인들을 '교활하고 간사한(狡惡)' 성품과 '어리석고 사나운(無智癡悍)' 풍속을 가졌다고 표현하는 작중 서술자의 직접적인 발화³⁴⁾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특히 안남국의 주요 인물들은 유교적 도덕성과

더은지라.” <완월회맹연> 66권, 김진세 독해본 p.154 및 p.183.

33) “이는 경직 스이의 광탕하고 음난흔 뜻이 팔마와 난참으로 브어시 다라리오.” / “만군 진중의 계집의 형실을 일코 왕가의 귀흔 씨로 굴강흔는 육되든 몽미의도 씨닷지 못하니…” <완월회맹연> 66권, 김진세 독해본 p.154 및 p.167.

34) “산천의 요요흔 진이와 음독흔 기운이 모혀 안남의 넌니 퍼지니 인물이 교악하며 토품이 험괴하여…” / “남방 풍속이 무지녕한흔를 고치고져 하여…” <완월회맹연>

어긋나거나 부족한 면모를 드러내곤 한다. 두 작품의 국왕 모두 반란을 주도하는 한편 신의를 지키지 않거나 친족을 훼손하게끔 의도하는 등의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점, 안남 왕실의 일원인 팽환과 해릉공주가 간통 행위를 주도하거나 남녀간의 정을 중시하는 등 부도(婦道)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다가 죽음을 당하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작중 ‘이’로 평가되는 안남국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평가와는 어울리지 않는 면모 또한 보여주는 점에 있다. ‘승상(丞相)’, ‘대장군(大將軍)’, ‘삼군(三軍)’의 편제와 같은 호칭이 보여주듯이, 안남국은 그 지배자인 국왕을 중심으로 중국의 관제(官制)를 모방한 일정한 체제와 질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안남국의 인물들은 중국의 여러 고사(古事)들을 그들의 발화에 자연스럽게 인용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어,³⁵⁾ 그들이 중국의 학문 풍토를 근간으로 삼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나아가 충효(忠孝)에 기반한 윤리도덕의 개념 또한 일반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점은 타호와 호삼기라는 두 인물을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소현>에 등장하는 운남국 장수 타호는 전쟁 중에 소운성에게 포로로 잡혔으나, 소경에게 오히려 빈객(賓客)의 예로 환대를 받고 다시 안남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주목할 것은 타호가 풀려나는 과정이다. 그는 소경에게 이미 귀향을 허락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갑자기 통곡하다가 군중(軍中)을 어지럽힌 죄로 끌려온다. 그는 자신이 붙잡혀 온 사이에 팔순의 홀어머니가 심신이 상할까 염려하여 울었음을 밝히고, 이에 크게 감

66·67권, 김진세 독해본 p.79 및 p.204.

35) “승부는 병가의 상식라 었디 혼 번 패호므로 문득 두겁흘리잇고”, <소현성록> 이화여대본, 11권 p.36.

“이 진짓 도팔의 장평진과 괴겁의 완타졸이라.”, <완월회맹연> 66권, 김진세 독해본 p.74.

동한 소경은 황금 오백금을 주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돌려보낸다.³⁶⁾

<완월>에 등장하는 안남국 장수 호삼기는 정잠이 직접 ‘왕좌지재(王佐之材)이자 대인(大人)의 기상을 지닌 이’³⁷⁾으로 평가할 만큼 뛰어난 능력과 인품을 겸비하고 있다.³⁷⁾ 그는 중국 명나라에 이반(離反)하는 행위를 잘못 된 것으로 여기고 갈등하면서도, 안남국왕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굳게 지키는 인물이다. 한 차례 사로잡혔다가 정잠의 아량으로 풀려나는 장면에서, 그는 정잠의 은혜에 감격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상 다시 싸우는 배은망덕함을 보일 것이라고 한탄한다.³⁸⁾

타호와 호삼기의 서사는 기본적으로는 <소현>의 소경과 <완월>의 정잠의 관후(寬厚)함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에 가깝다. 그러나 그 관후함의 대상이 되는 안남국 인물들의 성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충효(忠孝)의 윤리에 충실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안남국에도 예치(禮治)가 분명하게 존재함을 보여준다. 즉 유교적 도덕관의 기준을 통해 안남을 ‘이’로 규정하는 데는 근본적인 허점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괴리감은 <소현>과 <완월>에 등장하는 중국 출신의 인물들

36) “회 복디 읍왈 쇼장이 승상의 살오신 은혜를 님스와 분골쇄신하나 갑홀 길히 업스오 니 엇디 감히 군등을 어즈러이리잇고 다만 늘근 어미 나히 팔십이라 쇼장이 다룬 동심이 업기로 감지를 몸소 봉양하더니 이리 잡혀온 후 노피 받드시 주리고 외로와 죽으리 니 영모디정을 이기디 못하야 월하의셔 호곡하더니 승상의 법을 범하니 죄 일만 번 죽엄죽 하이다 승상이 홀연 감동하야 눈물을 흘니고 던령하야 황금 오백금을 주어 타호를 노하보내니라.” <소현성록> 이화여대본, 11권 p.41.

37) “그 풍신이 비속하며 골격이 능긋하여 오악이 구비하니 연합 호두의 냥요 원비라 진짓 왕좌지재오 더인 기상이니 원슈 그 죽인을 아람다이 녀이고 용무를 앗겨 죽일 뜻을 두지 아니하며...” <완월회맹연> 66권, 김진세 독해본 p.78.

38) “감히 몸을 가져 놓히 관공기 비호고 원슈를 나디 죠죠하게 비호미 아니라 국왕의 식기 편벽하니 삼기를 혹즈 죽이지 아나도 원슈의 호성지덕을 화용의 갑호미 잇지 못하오리니 슬기는 마춤니 천도의 무거이 죄를 짓고 다시 비은망덕하미 남은 싯히 업술 바를 슬허하느이다.” <완월회맹연> 66권, 김진세 독해본 p.78.

또한, 안남의 국왕들과 여성들 못지 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유교적 관점에서 패륜(悖倫)이라 할 만한 행위를 저지르는 점을 고려할 때 한층 부각된다. 작중 도덕군자의 표상으로 묘사되는 주인공 부자와 혈연으로 이어진 친인척들 사이에서조차 그 예를 종종 찾을 수 있다. 소경의 친누이이며 상부(喪夫)한 뒤 훼손하였다가 사약을 마신 소교영, 소운성의 조카로 도적들과 어울리다가 대역죄를 범해 처단당하는 소세명, 정잠의 친자로 계자(繼子)인 형 정인성을 시기하여 그를 음해하고 죽이려 드는 정인중 등이 그 예시이다. 물론 중국인과 안남인들 양자의 비교는 보다 정치하고 세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적어도 안남인들이 보여주는 선악(善惡)의 양상은 어디까지나 개인 차원의 도덕성 문제에 가까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소현>과 <완월>의 안남국 형상에서는 ‘이’와 ‘화’의 상호모순적인 양면성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이러한 양면성에도 불구하고 작중에서는 안남국을 교활하고 부도덕한 오랑캐로 취급하는 발화가 계속되면서, 그 괴리감과 모순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고 있다.

2. 문명화된 제후국 - <창선감의록>

<창선>에서의 안남국은 주인공 화진이 만화천왕을 자처하는 해적 서산해를 물리치기 위해 남방으로 원정하는 서사에서 등장한다. 중국을 섬기는 제후국(諸侯國)의 위치에 있되, 단순한 오랑캐가 아닌 자주성을 지닌 문명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우군(友軍)으로 등장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1절에서 살핀 <소현>과 <완월>의 경우와는 달리, <창선>에서는 안남국을 가리켜 ‘오랑캐’ 혹은 ‘도적’으로 칭하는 격하의 호칭 또한 찾아볼 수 없다. 국왕을 비롯한 안남인들은 스스로를 신하로 인정하고 중국을 상국(上國)으로 대우한다. 하지만 반대로 중국의 인물들 또한 안남인들을 아랫사람으

로 여기거나 오랑캐로 차별하는 의식을 드러내는 대신, 자신들과 동등한 입장으로 여기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한 예로, 작품의 주인공 화진이 안남왕과 자신의 교분을 '경개여고(傾蓋如故)'³⁹⁾로 표현하는 대목을 들 수 있다. 작중에서 가장 뛰어난 도학군자로 묘사되는 화진의 인물 형상을 고려하면, 서로간에 '화이'의 우열이 전제되는 사이에서는 이러한 대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불어 작중에서 안남국은 병마철의 이간계(離間計)로 적군을 속여 위기로 몰아넣거나, 병마(兵馬)를 보내어 중국 군대와 협력하여 적을 물리치는 등 화진이 서산해를 물리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더불어 양국 출신의 남녀간 결연 서사에 주목해 본다. <창선>에서는 중국 명나라의 장수 유성희를 상대로, 안남왕 진홍의 장녀인 양아공주 진순교와 안남 출신의 여자객 이팔아가 결연을 맺고 있다. 작중에서 유성희는 비록 주인공은 아니지만 화진의 의형제이자 개국공신의 후예이며, 군담에서 화진 다음가는 대공(大功)을 세워 서평후(西平侯)에 제수되고 몰락한 권신 엄송(嚴嵩)의 화려한 저택을 하사받는 등 지극한 신분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중국 측 인물이다. 유성희의 풍모를 흠모한 안남왕 진홍은 화진과 의논하여 자신의 딸 진순교를 그의 정실로 맞이들인다. 진순교는 후일 유성희와 함께 중국으로 간 남편에게 진언하여, 예전 자신의 시녀였으며 안남국 정벌에서 화진에게 협력해 공을 세운 여자객인 이팔아를 소실로 맞이들리게 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왕족이라고는 해도 이민족인 안남국 출신의 진순교가, 공후백의 지위를 받을 만큼 높은 신분을 가진 중국 출신의 유성희와

39) '잠깐 만난 정도의 교분임에도 서로 마음이 맞아 예로부터 사귄 사이처럼 친한 사이'를 의미한다. 『공자가어(孔子家語)』 「치사(致思)」 편에, 공자가 길을 가던 도중에 정자(程子)와 만나 수레의 일산(日傘)을 기울이고 이야기하며 친해진 일화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표현이다.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행복한 결말을 맞는 데 있다. 특히 화진은 군중(軍中)에서 사사로운 혼인이 불가하다며 사양하는 유성희에게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이며, 사양한다면 상서롭지 못한 일’이라고 조언한다.⁴⁰⁾ 심지어 천명(天命)의 문제까지 끌어와 정당화하는 점에서, <창선>은 앞서 1절에서 살핀 <소현>과 <완월>에서 나타난 이민족과의 혼인에 대한 시각과는 전혀 다른 면모를 드러낸다.

더불어 <창선>은 <소현>과 <완월>에서 화이를 구분하는 주요한 기준이었던 ‘문화’의 문제에서도, 안남국이 충분히 유교문명화된 공간임을 연중에 나타낸다. <창선>에서는 <소현>과 <완월>에서 등장했던, 주인공에 의한 도학 강론과 교화 과정이 일절 나타나지 않는다. 안남왕 진흥, 진순교와 이팔아 등 안남국 출신의 주요 인물들 또한 유교적 도덕성을 온전히 구비한 인물들로 그려지면서, 도덕군자인 화진과 ‘경개여고’를 나누거나 공후(公侯)의 반열에 오르는 유성희와 정혼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지점들을 통해, 결국 <창선>에서는 안남국을 야만적인 오랑캐가 아닌 일정 수준의 체계를 갖추며 유교화한 문명국으로 대우하고 있음을, 즉 화이의 구분 가운데 ‘화’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황제를 섬기는 제후국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되, 역으로 황실을 제외하면 중국 본토의 신료(臣僚)들과도 동등한 위치로서 인정받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40) “계창이 예를 올곧게 지키고자 하니 역지로 권하기는 어렵구려. 그러나 하늘이 내려주신 것을 버리는 것은 상서롭지 못하다는 것을 계창은 또한 생각해 보시오.” <창선감의록>, 이지영 교감·교주본, p.227.

3. 중국을 호령하는 영웅의 출신지 - 〈몽옥쌍봉연록〉

〈몽옥〉에서의 안남국은 주인공 장홍의 출신지로 설정되며, 그가 가문이 멸문당할 때 홀로 살아남았다가 중국에서 출세한 후 다시 안남으로 돌아와 원수를 갚고 국왕으로 등극하는 서사 내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른 세 작품은 물론이요, 대다수의 고전소설에서도 유례가 드문 파격이다. 안남국 승상 장완의 장자였던 장홍은 유년 시절 가문이 역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당할 때 겨우 홀로 살아남아 중국으로 탈출한다. 그는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국경의 반란을 진압하는 등 뛰어난 능력을 보여 중국 당나라 황제의 총애를 받고, 황제의 차녀인 회양공주를 비롯한 중국인 출신의 삼부인(三夫人)과 혼인을 맺는다. 작중에서는 안남국이 간신의 농단에 빠져 정권이 전복되고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는데, 모두 장홍에 의해 진압된다. 첫 번째 원정에서 장홍은 자신과 가문에게 누명을 씌운 원수인 우필을 처단하고 옛 주군이었던 양씨 왕조를 다시 일으키지만, 두 번째 원정에서는 양씨 왕족이 모두 멸족당했으므로 황제의 허락을 받고 그들을 대신하여 안남왕에 등극하게 된다.

〈몽옥〉에서 장홍은 작중 시점으로부터 약 백여 년 전에 안남을 정벌하였던 중국 출신 장수인 장벽강의 후예이다. 즉 한족(漢族)의 피를 이었으며, 안남을 자신의 출신지로 인식하고 안남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⁴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홍은 중국의 인물들을 포함한 작중의 누구보다도 뛰어난 재주와 능력을 발휘한다. 그는 황제의 부마, 중국의

41) 이 점은 선행 연구에서 조혜진이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앞의 논문, pp.49-50). 이외에도 장홍이 “하늘을 소기고 세상을 업슈이 너이고 님군을 비반하고 타향의 뉴락흔 죄신 장홍은 안남국 미미흔 속지라.”(〈몽옥쌍봉연록〉 국도본, 최길용 교주본, p.116.)라고 하여, 황제에게 그간 숨겨 왔던 자신의 태생을 처음으로 밝히는 장면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승상이자 대장군,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남을 다스리는 국왕의 신분에까지 오르게 된다. (인식세계의) ‘주변부에 속하는 안남에서 출현한 인물이, 중심 부인 중원을 구원하고 중화질서를 수호하는’⁴²⁾ 특이성을 보이는 것이다.

장흥의 결연 문제 또한 괄목할 만한데, 그는 황제의 친딸인 회양공주, 당대의 명신(名臣)인 관복양의 딸인 문창공주 관혜옥, 태후의 혈족인 진태장 등 지체 높은 중국인 여성들과 결연을 맺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장흥의 안남국 출신이 문제가 되거나, 부부간 금슬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중국의 지배자이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황제가 직접 ‘외번(外蕃)의 백성들 또한 중국의 백성들과 차등(差等)이 없다’⁴³⁾고 못박으면서 그의 부마 간택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주도한다.⁴⁴⁾ 중국인 남성과 안남인 여성 사이의 결연 시도였던 앞의 세 작품과는 달리, <몽옥>의 결연은 안남인 남성과 중국인 여성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도 흥미롭다.

42) 조혜진, 앞의 논문, pp.57-58.

43) “천하를 두민 시히 안이 다 천지 소분 아니라 또 혼 짐의 백성이라 엇지 혼 혼 등국의 벼슬을 높히며 일홈을 어든 지어든 짐의 신히리오 외번인즉 지조와 공이 있는 지 짐의 거느린 바와 다라미 이시라.” <몽옥쌍봉연록> 국도본, 최길용 교주본, pp.133-134.

44) 그런데 <몽옥> 작중에서 장흥의 부마 간택은 그가 안남국의 망명죄수 출신임이 밝혀지면서 조정 신료들의 반대로 한 차례 미루어졌다가, 후일 그가 안남을 정벌하고 부친의 원수를 갚기 직전에 비로소 성사된다. 선행 연구에서 조혜진은 신료들이 내세운 장흥의 신분 문제는 황제가 언급한 유량하던 진문공(晉文公)에게 딸을 시집보낸 진목공(秦穆公)의 일화에 의해 논파되었음에도, 결국 변방 출신자에 대한 차별이 작용하여 후일로 미루어졌다고 해석하였다(앞의 논문, pp.70-71). 그러나 진문공과 달리 장흥은 왕족 출신이 아닌 안남의 신하 가문의 출신이자, 그 시비는 차치하되 반역의 죄목을 지고 있다. 또한 신료들은 장흥의 행위를 “진실노 응지디락 곳 아니면 십스쇼으로 만나 도로의 발섭하며 창황지시의 범슈의 익즈지원과 오원의 범초보원허던 일을 생각허리오”(<몽옥쌍봉연록> 국도본, 최길용 교주본, p.118.)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결국 이는 장흥의 안남국 출신에 대한 차별보다는, 부마 간택에서 보다 엄격한 정치적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거나, 혹은 고전소설에 흔히 나타나는 혼사장애를 통한 서사적 긴장의 고조와 전개 of 지연을 위한 장치로 보는 것이 적합할 듯하다.

비단 안남 출신의 주인공인 장홍만이 아니라, 그의 고향이자 근거지인 안남 또한 '예교 문화가 존재하며, 뛰어난 유학자가 숨어 사는'⁴⁵⁾ 문명화된 공간으로 묘사된다. 물론 안남은 장홍 스스로 '일촌(一村)'으로 언급하는 등,⁴⁶⁾ 작중 인물들의 입을 빌어 중국 당나라에 비하면 분명 문화적으로 부족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에 비해 상대적인 평가로 이해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궁궐이 장려하고 인물이 번성"⁴⁷⁾하며, 스스로를 칠현(七賢)으로 일컫는 명사(名士)들이 산곡(山谷)에 숨어 사는,⁴⁸⁾ 그리고 장홍 본인에 의해 주문왕(周文王)의 다스림과 같은 교화를 받는⁴⁹⁾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몽옥>의 형상화는, 2절에서 살핀 <창선>과 같이 작중 안남국을 유교화한 문명국, 즉 화이의 구분 가운데 '화'로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그런데 <몽옥>에서는 <창선>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안남국 출신의 주인공이 고난을 딛고 중국을 호령할 정도의 활약을 펼치는 일련의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낸다. 즉 변방 제후국 출신의 인물이 단순히 문화적 수준을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서, 본국(本國)에 해당하

45) 조혜진, 앞의 논문, p.64.

46) "구강은 등국지다라 일촌서성이 었디 비틀 구강의 미리오" <몽옥쌍봉연록> 러시아 동방학연구소본, 최길용 교주본, p.26.

47) "궁궐이 장려하고 인물이 번성하여 남제 조고만 싸와 니도하더라." <몽옥쌍봉연록> 국도본, 최길용 교주본, p.373.

48) "산곡의 은거 하라는 니억 오기 정세강은 비정 칠인이 청명세절지스로 증칭 칠현하야 세에 나지 아니하거날 왕이 후록을 비스하야 므츨니 일위여 문연각 티학스틀 삼아 더브러 칠란홍망과 고금네악을 강논하더라." <몽옥쌍봉연록> 국도본, 최길용 교주본, p.375.

49) "왕이 안남을 다스리미 닌국이 화하고 네의 종족하야 안남을 일크르디 주문왕의 교화 있다 하느니라." <몽옥쌍봉연록> 러시아 동방학연구소본, 최길용 교주본, p.387. 한편 국도본에는 '주문' 두 글자가 없이 '왕의 교화 있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문맥상 '주문왕의 교화 있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는 중국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위치에 이를 수 있다는 자의식이 엮보이는 것이다.

단 이러한 안남국의 작중 형상화는 화이론의 분명한 기반 위에서 성립함을 간과할 수 없다. 실례로 <몽옥>에서는 장흥이 오왕(吳王)의 반란을 정벌하면서, 이 반란에 가담한 다섯 이민족 국가를 가리켜 ‘이적’, ‘굴혈(掘穴)’, ‘ㄱ야미(개미)’와 같은 표현으로 지칭하고 있다.⁵⁰⁾ 특히 ‘ㄱ야미’라는 표현은 1절에서 살핀 <소현>과 <완월>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들 만큼 극단적이다. 즉 어디까지나 안남국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화’로 인정받은 것이며,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경계 자체는 여전히 강고하다.

그런데 <몽옥>의 면면을 세세히 살펴보면, 안남국을 화이의 구분에서 ‘화’로 인정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후국인 그들이 섬겨야 할 중국에 대한 거리감과 경계의식을 드러내는 지점이 발견된다. 이는 <몽옥>의 초반부인, 중국 사신이 안남국을 찾아와 공물을 요구하자 이에 어린 장흥이 응대하는 대목을 통해 은연중에 드러난다.

해당 대목에서는 중국(당나라)과 안남국이 무려 오십여 년 동안 교류를 끊은 와중에, 황제가 보낸 사신이 찾아와 수십여 년 동안 밀린 세공(歲貢)을 모두 바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연출된다.⁵¹⁾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무

50) “불가하다 네브터 이적을 쇼멸홀 지 업서 도로혀 히를 만나니 진황 한뎨 므츨니 오랑 키를 업시치 못호고 선제 돌궐과 년흔히미 한고궐 빅등의 교호고 스마신은 님군의 스막의셔 곤육을 만나니 이는 특별히 하늘이 혼 고디 모드시미라 시러곰 엇지 그 도로혀 굴혈을 막으리오 <중략> 엇지 구투여 병을 드러 ㄱ야미 ㄱ툰 거슬 다톨 비리오.” <몽옥쌍봉연록> 국도본, 최길용 교주본, pp.278-279.

51) “천궐 변난을 지니되 먼니 안즈 불 만호여 승궐될 듯고 쯤시 구홀 의시 업고 쯤공 진상을 폐호니 엇지 신즈의 되리오 우리 디황황제 명계삼왕호시니 스희지니 쯤공호고 천히낙업호되 홀노 안남이 안연호니 이러무로 도민벌죄호는 법을 니어 날노써 죄를 못게 호시니 만일 보화금은으로써 년년세공을 녀넉히 아니면 녹스톨 움기는 해 불구의 니르리니 천하십삼도 군민 니르면 누우츨나 미지 못호리라.” <몽옥쌍봉연록> 국

려 오십여 년간이나 안남국이 중국과의 교류를 끊고 조공 또한 바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장흥은 양국 간의 거리가 멀고, 또 선대의 안남왕이 수도를 옮기면서 중국으로 통하는 길이 끊겼다고 변명한다.⁵²⁾ 하지만 중국의 사신이 직접 찾아온 점, 후일 장흥이 두 차례에 걸쳐 중국 군대를 이끌고 안남국을 정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대신 안남국 측에서 의도적으로 중국과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 정황이 엿보이는 것이다.

더불어 해당 대목에서 중국 사신은 그간 밀린 조공을 한꺼번에 바치지 않으면 군병을 보내 정벌하겠다고 협박한다. 이에 장흥은 철저히 자신들을 낮추고 상대를 대국으로 높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지나친 요구로 인해 안남국 백성들이 굶어죽을 위기에 처하고 중국을 섬기는 마음 또한 사라지게 될 것임을 언저시 암시함으로써 중국 사신을 설득한다.⁵³⁾ 즉 강압적으로 구는 중국의 횡포 앞에서, 직접 항거하기보다는 최대한 공순(恭順)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약소한 제후국인 안남국의 입장이 생생하게 묘사되는 것이다.

하지만 <몽옥>의 해당 대목은 장흥의 언변에 감탄한 사신이 조공 요구를 철회하고 오히려 안남국을 위해 상사(賞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즉 중국과 안남국 사이에 형성된 미묘한 긴장관계를 전면적으로 심화시키는

도본, 최길용 교주본, pp.27-28.

52) “우리 나라히 등국지니에 이시나 먼니 희변의 벽쳐호야 장안으로 더브러 상계 슈만 나라 국은을 니즈미 아니라 슈뢰 요원호야 왕화를 넘지 못호고 반복호미 아니로디 진공의 니라지 못호른 선 혜왕의 니도호는 연피라 슈뢰 능히 통치 못호는 고로 슈야우 탄호는 빈라.” <몽옥쌍봉연록> 국도본, 최길용 교주본, p.29.

53) “천시 문득 세세조공을 일쥬의 진현하라 호시니 타일 군신 이히 다 괴스홀지라도 신즈의 엇지 거역호리잇고 부고와 궁등을 지극 점검호야 공현호려니와 앓기는 바는 적즈의 의심이 일석의 변호고 피골이 부지치 못호여 브라미 쫓쳐지를 탄호는이다.” <몽옥쌍봉연록> 국도본, 최길용 교주본, p.30.

대신, 주인공인 장홍의 능력과 영웅성을 강조하는 장치로 기능하는 데 그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론에 따른 국가 간의 주종관계를 긍정하는 작품의 한편에서, 제후국의 입장을 통해 중국을 비판하고 거리를 두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것은 충분히 유념할 만하다.

IV. 화이론을 통해 본 안남국 형상의 의미

앞의 3장에서 살핀 바, 본고의 연구 대상인 네 작품은 화이론의 문제를 통해 작품마다 서로 변별되는 안남국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소현>과 <완월>에서는 기본적으로 안남국을 ‘이’로 규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화’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모순된 양면을 나타낸 반면, <창선>과 <몽옥>은 안남국을 분명하게 ‘화’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몽옥>의 경우 안남국 출신 주인공의 중국에서의 활약을 통해 ‘이’로 취급되는 변방의 제후국 또한 중국과 충분히 대등해질 수 있음을 강렬하게 드러내었다.

그런데 네 작품에서 안남국을 ‘화’ 또는 ‘이’로 구분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교적 도덕성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 요소를 내세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2장에서 살핀 2장에서 살핀 조선조 문인들의 기록에서 나타난 안남국의 인식과 상통한다. 네 작품이 상층 사대부 가문을 중심으로 창작 및 향유된 점을 고려하면, 사대부 문인들이 지녔던 현실 속 안남국에 대한 인식세계가 소설 속 가상화된 안남국의 형상에도 중요하게 반영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고전소설에서 화이의 구분 기준으로 문화적 요인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작품의 실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본고에서 살핀 <소현>과 <완월>의 경우가 그것이다. 앞서 2장 1절에서 살폈

듯이, 두 작품의 안남국은 중국을 모방한 예치(禮治)가 이루어지는 국가이다. 주요인물들의 부도덕한 양상이 부각되기도 하지만, 이는 안남인들의 천성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일탈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중 인물들과 서술자의 발화를 통해 이들을 ‘무도한 오랑캐’로 타자화하는 모순은, 소중화주의를 근간에서부터 부정하고 우리 자신조차 ‘이적’으로 격하시킬 위험성을 내포한다.

물론 <소현>과 <완월>의 모순된 양상은 소중화주의에 대한 의도적인 부정과는 거리가 있다. 철저한 예교주의(禮敎主義)로 무장한 주인공의 일방적 우위를 통해 안정된 중세적·중국중심적 질서를 구현하려는 서술의 방향성이, 문명화된 안남국의 실상을 작중에 반영하는 것과 서로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⁵⁴⁾ 그런데 여기에는 “중화를 존중하고(尊中華) 이적을 배척하는(接夷狄)”⁵⁵⁾ 조선 후기 화이론의 두 가지 주요 논리가, 당대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후자 대신 전자의 경향으로 기울어졌던 바가 일정하게 작용한 듯하다.

화이론의 두 측면 가운데 ‘양이적(接夷狄)’은 북벌론 및 복수설치의식과, ‘존중화(尊中華)’는 존주론 및 대명의리의식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 17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현실적으로 북벌이 요원한 일임을 인정하고, 무력을 통한 복수보다는 중화의 문화적 전통을 잇고자 하는”⁵⁶⁾ ‘존중화’의 의식이 대두되었다. 이는 각각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의 상층 사대부가의 저작으로 여겨지는 <소현>과 <완월>의 창작 배경

54) <소현>과 <완월>의 향유 배경을 고려할 때, 상층 사대부가에 속할 두 작품의 작자가 안남국의 실상에 대해 무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완월>에서는 안남의 수토(水土)를 무덥고 장기(瘴氣)가 가득하다고 묘사하는데, 이는 허구적인 과장이 섞여 있긴 하되 안남에 대한 일정한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묘사일 것이다.

55) 우경섭, 앞의 논문, p.260.

56) 백진우, 앞의 논문, p.89.

과도 맞물린다.

특히 <소현>과 <완월>에서 전쟁을 일으킨 안남의 국왕을 처형하는 대신, 교화하고 제후국으로 다시 복속시키는 비교적 원만한 결말을 취하는 것은, 군담소설을 중심으로 보이는 ‘북적(北狄)’에의 적개심과 대비된다. 고전소설에서 흔히 나타나곤 하는 북방 이민족에 대한 적개심은, 주지하다시피 여진족과 청에 대한 복수설치의식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⁵⁷⁾ 실제로 <완월>에서도 북흉노와의 전쟁으로 인한 토목지변(土木之變)을 주요 소재로 다루면서 이와 같은 의식충위를 부분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적어도 안남국 정벌의 서사에서는 ‘양이적’의 측면을 강조한 복수의식보다는, ‘존중화’에 초점을 둔 중화질서의 구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겠다.

문제는 이러한 의식세계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안남국을 선택하면서 그 실상과 괴리되어 일어난 충돌과 모순이, 중국중심적인 화이론에 기대고 있는 소중화주의의 근본적인 약점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화이의 구분에서 문화적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소현>과 <완월>에서는 ‘해외의 오랑캐 여자’⁵⁸⁾와 같은 표현에서처럼 지역적·종족적 요소 또한 고려되기도 한다. 설혹 문화적 요소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잡더라도, 이제는 그 문화의 ‘수준’을 어떻게 기능할지가 문제시된다. 중국과 안남국 모두 유교적 문화를 지닌 것은 동일하며, 단지 개인의 선악에 따라 그 가치의 준수 여부가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중화주의는 그 논리적 기준의 불안정함으로 인해 자가당착에 빠질 위험성을 늘 안고 있었음을, <소현>과 <완

57) 이 문제는 선행 연구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되, 서대석(『군담소설과 병자호란,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재간행판), 제이앤씨, 2008, pp.183-207)의 논의를 주요하게 참고할 수 있다.

58) 너는 희외에 번네오 나는 둥국 대신이라 서로 더혹도 더러이 너기느니 엇디 만고 강상을 폐호리오.” <소현성록> 이화여대본, 11권 p.50.

월>에 나타난 모순적인 안남국의 형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두 작품의 경우와는 달리, 유교문명화된 안남국을 '화'로 인식하고 긍정하는 <창선>과 <몽옥>에서는 이러한 화이 구분의 모순을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에 육박하거나 대등한, 심지어 그 이상의 위치에 서는 안남국과 그 출신 인물들의 형상을 그려냄으로써, 당대 조선의 대외관계 및 소중화주의에 근거한 자의식을 가탁하고 투영하는 시각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몽옥>을 가리켜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대등의식·자존의식을 가탁하여 보여줌으로써 같은 제후국으로서의 긍지와 우월성을 보임과 동시에 월남에 대한 우호의식을 보여주고 있”⁵⁹⁾다고 파악한 것은, 이 작품이 엄격한 화이론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정의 여지가 있되, 대체로 동의할 만한 견해이다. <창선>과 <몽옥>의 안남국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전제하면서도, 그와 대등하다는 자부심을 표출하는 소중화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양태를 소설적 상상력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두 작품 가운데 <몽옥>은 중국을 호령하는 주인공 장흥의 형상 외에도, 중국과 안남국 사이의 미묘한 갈등을 형상화함으로써 중국중심적인 화이론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의식의 단초를 미약하나마 제기하고 있었다. 앞서 3장에서 살폈듯이, <몽옥>의 초반부에는 섬겨야 할 '대국'인 중국과 충실한 신하여야 할 '소국'인 안남국 사이의 거리감, 그리고 중국 사신의 폭압적인 요구와 그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안남인의 대응이 그려진다. 이는 안남국의 형상을 통해 당대 조선의 상황과 입장을 가탁하는 과정에서, 비단 중화문명의 계승 혹은 중국과 대등해지고자 하는 자부심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폭압적인 강대국의 횡포와 그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약소국의 울분과 비판의식 또한 반영하려 한 결과로 보인다.

59) 강제철, 앞의 논문, pp.150-151.

단 <몽옥>의 해당 대목은 결국 중국에 대한 적대의식 혹은 우월의식을 드러내는 대신, 주인공의 영웅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에 그치면서 별다른 반향을 나타내지 못한다. 작중 해당 대목의 서사 구조 자체는 <떡보와 사신> 유형으로 대표되는 설화들에서 나타난 바와 유사하되, 그것이 지니는 문제제기나 의미는 크게 축소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화이론을 근간 이념으로 삼았던 상층 사대부가의 저작물인 <몽옥>이 지니는 명백한 한계점이라고 하겠다.

결국 <소현>·<완월>·<창선>·<몽옥>의 네 고전소설 작품에 등장하는 안남국의 형상은, 화이론과 대외인식을 중심으로 한 조선 후기의 사상적 흐름이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어떻게 형상화되는지를 읽어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작품들이 창작된 17·8세기 전후를 중심으로 나타난, 현실 속 안남국에 대한 인식과 문학적 변용, 제후국이라는 서로 동일한 위치에 있는 조선에 대한 인식, 그것들의 기저에 존재하는 화이론과 중화주의 등에 대한 당대인들의 생각과 문제의식들을 파악하고, 가치 판단적 측면에서 진보와 퇴보의 편폭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이다.

박희병은 전근대 시기의 한국과 베트남에 대해 “양국은 중국이라는 보편성을 수용하면서도 자국의 특수성을 유지해야 하고, 중화적 질서 속에 있으면서도 자국의 영토적 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서로 상충되는 이중의 과제를 떠안고 있었다는 데서 각별한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⁶⁰⁾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청나라로 대표되는 ‘북적’과는 달리, 전근대 시기의 베트남(안남)은 같이 중국을 섬기는 제후국으로서 적개심을 불태우는 대신 조선과 서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상대였다. 이는 고전소설 내에서 안남국을 화이분별의 관점에서 다채롭게 형상화하면서,

60) 박희병, 앞의 논문, p.159.

나아가 당대 조선의 국제적 상황과 대외의식을 은연중에 투영하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고전소설에서 다수 등장하는 이민족 관련 서사들 중에서, 안남국을 대상으로 한 본고의 네 작품처럼 이민족과 그에 대한 인식을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영웅군담소설로 대표되는 이민족 관련 서사의 대다수는 전쟁담을 통해 강렬한 적개심과 복수의식을 표출하거나, 주인공의 영웅적 능력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굳이 안남국을 형상화하지 않더라도, 이민족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화이론의 문제를 새롭게 해석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련의 작품들이 존재한다. 이민족 여성과의 혼인을 다루는 <유씨삼대록>, <옥루몽>, <옥수기> 등의 장편소설들, 이민족 출신 주인공의 귀화를 다룬 <용문전>, 청나라를 피해 해외에 새로운 중화문명을 건설하는 <태원지>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실재하는 외국(外國)인 안남국에 대한 인식의 소설적 형상화를 통해 화이론의 문제를 다루는 <소현>·<완월>·<창선>·<몽옥>의 경우와는 결을 달리하되, 중국중심적 질서의 붕괴와 그 재정립의 시기의 다양한 사상적 흐름의 단면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정한 문학사적 의의를 갖는다. 단 작품마다 보여주는 양상과 그에 내포된 인식세계가 다양하므로, 별도의 비교 검토를 통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17·8세기 고전소설에 나타난 이민족 국가인 '안남국'에 주목하여, 그 구체적인 형상을 그에 반영된 당대 소설 향유층의 의식세계와 관련지어 살피고 나아가 그 의미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화이론

및 대외관을 중심으로 한 조선 후기의 사상적 흐름과 그 문학적 형상화의 방향성을 읽어내고자 하였다. 고찰한 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화이론을 통해 조선조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안남(베트남)에 대한 문헌기록들을 살펴보면, ‘오랑캐’와 ‘문명국’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인식이 병존(並存)하였음을, 단 사행길에서의 시문 교류를 중심으로 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난 다수 사례를 통해 전반적으로는 후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소현>과 <완월>의 안남국은 ‘이’와 ‘화’의 상호모순적인 양면을 드러낸다. ‘이’로서의 면모가 작중의 안남국에 대한 멸시적인 호칭과 전쟁을 일으킨 안남인들 스스로 중국을 ‘대국’으로 예우하는 점, 전쟁 후 안남인들이 중국 출신 주인공들에 의해 유교문화적 교화를 받는 점, 중국 출신 남성들에 대한 안남국 출신 여성들의 구애와 결연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는 점, 유교적 도덕성에 어긋나는 주요인물들의 형상 등을 통해 표출된다면, ‘화’로서의 면모는 안남국이 중국의 것을 모방한 관계와 학문적 풍토, 충효의 윤리도덕을 갖춘 점, 중국 측의 ‘악인’들과도 대비될 만큼 충효의 가치를 질게 드러내는 여타 인물들의 형상을 통해 표출된다.

(3) <창선>과 <몽옥>에서의 안남국은 화이의 구분에서 ‘화’로서의 형상을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작중 안남국이 같은 황제의 신하라는 전제 하에서 중국인들과 동등한 호칭 및 대우를 받으며 또한 유교문화적 공간으로 형상화되는 점, 안남국 출신의 여성이 중국 고위 사대부 남성의 정실이 되거나, 안남국 출신의 남성이 중국 황제의 부마가 되는 등 상호결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점, 안남국 출신의 주인공이 중국을 무대로 대활약을 펼치는 점 등을 통해 확인된다. 특히 안남국의 주요인물들은 유교적 도덕관념을 충실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 특히 <몽옥>의 경우 <창선>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안남국 출신

주인공의 중국에서의 활약을 중점적으로 그림으로써, 변방의 제후국 또한 본국(本國)에 해당하는 중국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위치에 이를 수 있다는 자의식을 드러낸다. 한편으로는 제후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폭압적인 행보를 비판하기도 하는데, 이는 단초를 제시할 뿐 중국중심주의 및 화이론에 대한 본격적인 반발로 이어지지는 않는 한계를 보인다.

(5) <소현>·<완월>·<창선>·<몽옥>의 네 고전소설 작품에 등장하는 안남국의 형상은, 조선조 사대부 문인들의 현실 속 안남국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동시에, 화이론과 대외인식을 중심으로 한 조선 후기의 사상적 흐름이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어떻게 형상화되는지를 읽어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작품들이 창작된 17·8세기 전후를 중심으로 나타난, 현실 속 안남국에 대한 인식과 문학적 변용, 제후국이라는 서로 동일한 위치의 조선에 대한 인식, 그것들의 기저에 존재하는 화이론과 소중화주의 등에 대한 당대인들의 생각과 문제의식들을 파악하고, 가치판단적 측면에서 진보와 퇴보의 편폭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이는 다른 고전소설에서 이민족의 형상을 입체적으로 다루는 바와 상통하는 면이 있되, 별도의 구체적인 비교 검토와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소현성록> 이화여대본.
<완월회맹연> 김진세 독해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창선감의록>, 이지영 교감·교주본, 문학동네, 2010.
<몽옥쌍봉연록>, 최길용 교주본, 학고방, 2017.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 강재철, 『한국고전소설에 나타난 대월의식』, 『동양학』 30,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0, pp.101-116.
김병국, 『한국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대 출판부, 1995.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4.
박희병, 『유교와 한국 문학의 장르』, 돌베개, 2008.
_____, 『조선 후기 지식인과 베트남』, 『한국문화』 47,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pp.159-176.
백진우, 『전란의 기억과 문학적 극복 - 정묘·병자호란 이후 17세기 후반에 나타난 문학적 현상에 주목하여』, 『동양고전연구』 68, 동양고전학회, 2017, pp.69-97.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재간행판), 제이앤씨, 2008.
서정현, 『< 창선감의록 > 군담(軍談)의 특징과 작자의식』, 『고소설연구』 41, 한국고소설학회, 2016, pp.239-273.
우경섭, 『송시열의 화이론과 조선중화주의의 성립』, 『진단학보』 101, 2006, pp.257-289.
유인선,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 양국관계의 어제와 오늘』, 창비, 2012.
이덕무,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 청장관전서』, 민족문화추진회, 1981.
조혜진, 『<몽옥쌍봉연록>의 공간 인식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4.

Abstract

The Image and Meaning of “An-nam(安南)”

in the Classical Novels of the 17·18th centuries

- Focusing on <So-hyeon-seong-rok>, <Wan-wol-hoe-maeng-yeon>, <Chang-seon-gam-ui-rok>, <mong-ok-ssang-bong-yeon-lok> -

Seo, Jeong-hyeon

In this paper, we tried to read the ideological flow of the late Joseon dynasty by focusing on “hwa-i-lon (華夷論)” and the literary imagination, and by paying attention to the image of the An-nam (Vietnam) in the four novels of 17·18th centuries. In the documents related to An-nam on the Joseon dynasty, the conflicting perceptions of the “barbarians” and the “civilized country” coexisted. The four novels reflected this perception in reality.

In <So-hyeon> and <Wan-wol>, while revealing the image as the “barbarians”, An-nam appeared as the “civilized country”, and implicitly revealed both sides contradictory to each other. <Chang-seon> and <mong-ok> revealed the form of the “civilized country”. Especially, in the case of <mong-ok>, self-consciousness was revealed as the nephew of the fringe can reach an equal or higher position in China through the main character from the An-nam. On the other hand, it criticized China’s national coercion.

The image of the An-nam in the four classic novels reflects the perception of the southern country in the realities of the Joseon Dynasty authors. Also, it shows as how the ideological flow of the late Joseon dynasty, centered on “hwa-i-lon”, is shaped through literary imagination and measures the extent of the progression and deterioration.

Key Word: An-nam, hwa-i-lon, classic novels, the late Joseon dynasty.

서정현

소속 : 안동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사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 tjwkrk@hanmail.net

이 논문은 2019년 2월 7일 투고되어
2019년 3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3월 11일 게재 확정됨.